

동·서양의 복식에 표현된 동물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비교 연구

- 유교적 불교문화권과 그리스도교 문화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symbols of animal patterns in oriental and occidental clothing - focusing on comparison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Christian cultural area -

이윤정*

경인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Yun- Jung Lee

Dept. of Practical Art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Patterns in clothing symbolize some specific meaning that differs across cultures and religions, although patterns have been mostly used to realize human desires to overcome natural hazards in every culture or religion.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animal patterns of Korea (Confucian/Buddhism culture) with those of Byzantine (Christian culture), based upon a research method of literature survey.

It is found through the research that both cultures used common patterns, such as dragon, butterfly, bat, honeybee, peacock, fish, and chicken.

In the case of dragon patterns, Korea used it to symbolize emperor, dignity, or authority, while Byzantine used it for devil. Bat patterns had different symbolic meanings in both cultures: they mean happiness, longevity, prosperity or many off-springs in Korea while they mean misfortune or unhappiness in Byzantine.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animal patterns, including butterfly, honeybee, peacock, chicken, had quite a similar symbolic meaning. Butterfly means change of life or beginning of new life in Korea, whereas it means resurrection in Byzantine. Honeybee symbolizes diligence, order, and cooperation. Many animal patterns were used in both cultures at the same time. Another difference can be found in terms of the kind of animals; for example, Korea used wild goose, pheasant, giraffe, deer, mandarin duck & turtle, while Byzantine used eagle, snake, pigeon. Of course, each and every animal has its own meaning, mostly positive.

Except dragons and bats, both cultures have a similar meaning in most of animal patterns. Generally speaking, Korea used imaginary animals to pray for human happiness, but Byzantine used real animals to pray for resurrections.

Key Words : animal pattern, symbol, Buddhism- Confucianism cultural area, Christian cultural area

I. 서론

문양은 집단적 가치의 상징물로, 문양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적 활동의 결과이다("전통 문양" 1990). 즉 문양은 각 민족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풍토, 사상, 종교 등이 작용되어 표출된 장식 조형의 한 요소로서, 각 민족 특유의 조형감각과 시대적 조형양식의 특성을 지닌다(이상례, 1991). 따라서 문양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체적 대

상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하여 또는 인간의 기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실적 혹은 추상적인 도형에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부가하여 표현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염원인 부귀영화, 안락, 영복을 기원할 수 있었다(박혜원, 1995). 즉 문양의 의미는 과거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보호 받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한 기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문양은 예로부터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서 쓰였고, 그들의 발전과 상호교류를 따라, 다양한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문양에 대한 상징성과 미적 감정은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는 정신적인 가치에 따라서 의

* Corresponding author: Yun Jung Lee
Tel: (032) 540-1489, Fax: (032) 540-1280
E-mail: yunjlee@ginue.ac.kr

미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문양은 종교나 시대성이 반영된다(김영자, 1992).

동·서양은 지역적인 면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문화적이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 종교적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양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사물을 대상으로 한 이상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절대 신의 구원을 바라는데 비해 동양은 개인의 복과 해탈을 바라는 유교적 불교문화가 성행되었다(신민, 2001).

지금까지 각각의 문화권에 대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두 문화권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교적, 불교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동양(한국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의 문양과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서양(비잔틴 문화를 중심으로) 문양의 상징성을 복식에 등장하는 동물 문양을 중심으로 두 문화 간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표현된 문양에 관한 분석을 통해 두 문화 간에 문양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문양에 대한 복식사적 자료는 선행연구 논문과 기존문헌을 참고로 하였다.¹

II. 이론적 배경

1. 문양의 상징성

문양의 기원은 본능적인 장식욕구에서 출발하며,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상고시대의 문양은 공간에 공백 없이 문양의 밀도가 높게 표현되는 것이 각 민족에게 공통되는 경향이였다. 문양이 단순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

문양의 기원은 언제나 추상화의 경향이 내재되어서, 자연주의적인 문양이 점차 간략화, 양식화되어 추상적인 형상이 됐고, 그리하여 기하학적인 문양이 양식화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주의적인 문양이 등장하는 원환적(圓環的)인 변천과정을 보이게 된다("무늬의 기원(naver백과사전)").

문양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나 환경적인 조건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의미로 연결되어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즉 문양은 인간의 마음이 염원하는 심적 의지를 사실적인 내용이나 문자 또는 공상적인 의미를 이용하여 표현했다(김영자, 1992). 더욱이 문양은 이것이 나타난 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문양은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에서 상용되는 문양은 그

사회의 특질에 접근하는 한 기호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양희, 2003).

상징이란 말은 그리스어인 symbolon에서 유래한 말로, 계약이나 증거, 표식, 또는 동일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정자, 2002). 포어(Fore, 1968)에 의하면 상징은 그 자체와 지시하는 대상을 넘어서 실제의 궁극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이코어(Ricoeur)에 따르면 상징은 해석하며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고 보아, 상징 안에는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상징은 끊임없는 해석과 사고를 창출시킨다고 볼 수 있다(이경순, 1999).

이와 같이 문양이 지니는 상징성은 인류 공통의 보편성도 갖지만 민족의 성정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특수성을 갖는다(김정자, 2002). 문양은 부적과 같은 주술부호, 권력과 존재 등을 상징하며, 식별부호로서의 기능 및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원망을 충족하려는 데 있다. 특히 문양의 상징성을 통하여 인간은 마음의 일면을 보상받고, 보호받거나 미래적인 기원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이윤정, 2003).

복식은 인간이 생활했던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에 집적적인 관련을 가진 그 시대의 생활양식의 한 표현이다. 그 중 복식에서의 문양 특히 전통적인 문양은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며 예술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이호정, 1987), 복식에 문양을 넣음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염원하는 의지의 표현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한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문양의 유형 및 각 문화권에서의 직물문양

문양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출처, 연출, 배열의 세 가지에 의해 분류된다. 출처에 따라서는 자연물, 인공물, 상상물, 상징물로, 연출방법에 따라서는 사실적 표현, 양식화된 표현, 추상적 표현, 기하학적 표현으로, 배열방법에 따라서는 전면, 사방, 이방, 한 방향, 가장자리, 간격을 둔 배열로 분류된다(임영주, 1991).

또 다른 분류는 조형방법, 소재, 의미내용, 표현기술, 용도, 시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조형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문양은 자유구성과 기하구성 문양으로 나뉜다. 문양의 소재에 따라서 구상과 추상문양으로 대별되며, 구상문양은 다시 동물, 식물, 자연, 풍경, 표장(기호, 문자 등)문양으로 세분되며, 추상문양에는 줄, 격자, 능형 등의 기하문양이 포함된다.

전통문양 특히 한국전통문양의 문양군은 자연문군(구름, 해, 달, 별, 물결, 돌, 불), 동물문(용, 학, 거북, 닭, 물고기, 박쥐, 극락조, 봉황, 나비, 말, 사슴, 원앙, 기린, 호랑이, 꿩, 해태, 토끼, 오리 등), 식물문(연꽃, 보상화, 매화, 난초, 국화 등), 인공물문(동전, 뿔, 책, 악기, 도끼, 매듭 등), 기하문(사각형, 능형, 육각형, 원형, 쪼자, 근자, 태극문 등), 복합문(십장생, 풍경, 식물+ 동물), 기타문(인물, 문자) 등으로도 분류된다(장수경, 1994).

다시 말하면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의 집단적 가치 감정이 통념에 의해 고정되고 표상된 제2의 자연 또는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동물문양은 구석기 시대부터 식물문양이나 기하학적인 문양보다 성행하였다. 이는 수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야수의 증식을 기원하고 획득을 바라는 주술과 결부되어 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도 기하학문양과 병행하여 동물문양이 그려졌고, 식물문양이 생긴 시기는 훨씬 후이다. 그것은 그들이 식물보다 동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원시민족의 토텐(totem)이 식물보다 동물로 많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동물문양은 기하학적으로 양식화되어 있으나, 이것이 점차 사실적인 의장으로 변하게 된다. 이집트의 염소 타조의 병렬(並列) 문양, 크레타섬의 투우(鬪牛) 문양, 메소포타미아의 문장적(紋章的) 새문양·교수(咬獸) 문양·수렵문양 등이 있다. 어류도 가끔 나타나는데, 크레타섬의 생선문양, 중국 양사오문화[仰韶文化]의 생선문양 등이 있다. 곤충은 많지 않지만 이집트에는 스카라베에서 갑충(甲蟲)을 볼 수 있고, 일본의 도타쿠[銅鐸]에서는 잠자리를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상적인 동물도 많은데, 이집트의 스펅크스, 메소포타미아의 유익수(有翼獸), 중국의 용 등은 그 좋은 예이다(“동물무늬(naver백과사전)”).

중국에서도 성스러운 표시로서, 황룡문양, 봉황문양, 부엉이문양 등의 동물문양이 번개문양과 더불어 발달하였고, 또한 현실적인 동물문양도 출현하였다. 교수문양에서는 한쪽은 가축, 또 다른 쪽은 영수(靈獸)로 나타내어 가축을 초자연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데에 최대의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호부적(護符的)인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나라 때에는 옛날처럼 주술적인 의미는 없어졌지만 봉황이 평화를, 용이 제왕을, 비둘기가 정령(精靈)을 상징한다는 생각은 오늘

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동물무늬(naver백과사전)”).

유교적 불교 문화권에서의 직물문양을 살펴보면 동양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양인의 사상은 儒, 佛, 道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양 철학의 대표인 공자, 노자 등 여러 파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이 우주적인 통일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천, 지, 인의 삼재(三才)를 통하여 자연의 섭리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김영자, 1992).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술과 신앙을 근간으로 하면서 소박하고 대중적인 우리 고유 문양을 전개해 갔지만,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때로는 귀족적이면서도 서민적으로, 때로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게 문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국의 전통문양은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것이지만, 우리 생활 문화에 동화시켜 재창조 되었다(박옥미, 정원희, 2003). 즉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간미에 바탕을 두고, 해학과 우아함을 문양에서 재창조하였다.

최순우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직물문양의 특징은 문양의 도상이 다양하지 않은 것, 식물문양이 많고 기하문양이 적은 것, 문양이 양식화되고 그 양식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 문양 의미상 길상(吉祥) 등의 뜻을 담은 우의(寓意)문양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직설적인 길상문양이 많은 것이다. 또한 특정 종류의 문양이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형상을 여러 가지로 조합, 양식화하여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한국의 무늬(naver백과사전)”).

기독교 문화권의 직물문양을 살펴보면, 4세기 이후부터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비잔틴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비잔틴(Byzantine) 시대는 A.D. 400년에서 시작하여 1000년 동안 문화권을 형성했다. 로마의 정치적 전통과 그리스 고전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 문화가 더해진 것이 이 문화의 본질이다. 비잔틴 문화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독교에 바탕이 있으며, 동방적 문화의 융합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그리스의 현세적 아름다움이 동방의 신비로움과 밝은 색채, 풍부한 장식성과 융합 되고, 종교적 관념과 결부되어 나타난 독특한 양식이다. 그러나 비잔틴 문화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가장 컸다. 초기에는 정숙 및 금욕의 풍조가 생활 전반에 걸쳐 요구되었고, 제국이 번성해 갈수록 장엄하고 화려한 양식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쳐 복식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비잔틴 시대의 복식에는 종교적인 상징성이 짙다. 따라서 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이 성서의 내용이나 장면을 묘사한다든지 인간들의 신을 향한 찬미의 모습이 주요 소재였다. 그 외에 자연물이 양식화된 형태로 표현되었으

며, 기하학적인 문양도 사용되었다(남자경, 2001). 또한 직물은 전체가 문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많으며, 풍부한 보석 장식, 자수, 직조, 염직의 다양한 기법이 발달했다(김영옥, 1987).

이 시대에 사용된 특징적인 직물문양은 동물의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서유럽 각지에서 발견되는 직물문양은 둥근 원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사자, 예수의 승천을 의미하는 독수리, 코끼리, 공작 등 동물문양이 주를 이루고, 식물문양은 장식적인 역할로 많이 사용되었다(Eberhard, 1983).

Ⅲ. 본론

1.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의 동물문의 상징성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는 유교가 중심이긴 하지만 불교, 도교, 무속 신앙 등 다양한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 어우러지는 상징적 문양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 문양의 내면성은 유교의 금욕주의, 중용사상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자연주의가 반영되어 철저한 평범함의 진미를 내재하고 있다(김원룡, 1978). 동물문은 실존하는 문양과 공상적인 동물문으로 구분된다.

1) 용문(龍紋)

용의 기원은 B.C. 3100년경으로, 용이 비를 다스리는 치민(治民)의 의미를 지녔고, 국왕 혹은 성인의 출현을 암시하고, 한 방위의 수호신이었다. 또한 신격화 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녀, 황제나 군왕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용문은 왕들의 전용문양이 되었다(김재임, 박춘순, 1992).

용의 상징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했으나, 전체적으로

로 볼 때, 용은 제왕의 선정, 명철함, 현인을 상징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용을 만물의 근본으로 여겨, 용은 생물의 조상이며, 생물의 왕으로 믿었다(조성희, 1998). 중국 한족에게 있어서 용은 권세를 나타내지만, 묘족에게 있어서 용은 대중의 수호신이며 농촌의 평안을 지키고, 자손의 번식을 가져다준다. 또한 오곡의 풍년, 가축의 건강과 번식,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동물이다. 따라서 복식의 곳곳에 등장하는 용문양은 좋은 친구로서 평등과 화목과 인성이 충만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김영신, 2002).

일본에서의 용은 불교의 상징이 되어 법당 내부나 각종 불구류에 사용되었으며, 에도시대의 무가사회에서는 조상의 무공, 가문의 격식을 표시하며, 위엄, 무력을 상징하였다(남미현, 2001). 또한 비와 구름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김세나, 오경화,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용의 상징적 의미는 불교의 전래로 크게 확대 변형됐다. 삼국시대의 용은 왕권과 결합하여 절대 권력을 상징하였고, 특히 신라인에게는 용신사상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취시키려는 원동력이 되어 민족 고유의 호국사상을 낳았다.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구류, 탑과 부도, 석등 등에 많이 조형되어 불교 의식의 호법용으로도 쓰였다(남미현, 2001). 조선시대 면복의 어깨 위에 사실적으로 표현된 용문은 왕의 권위를 사해에 떨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은 변혁과 혁신을 통한 황제의 적응력을 상징한다. 왕실에서 사용된 용문은 용의 위엄, 웅장함, 씩씩함 등을 취하는 반면, 민간에서 사용된 용문은 현세 이익적인 구복신앙의 상징으로 길조, 소박함, 해학, 생동력있는 생활 채취를 엿볼 수 있다(남미현, 2001). 조선시대 여인들의 장식품인 비녀와 노리개, 은장도 등에 나타난 용문은 오복사상을 담고 있어 길상의 우의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금기숙,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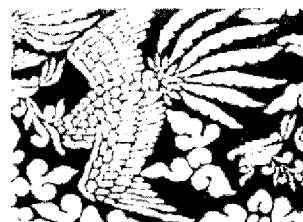
2) 봉황문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면서 신령스러운 존재를 표현하였으며, 천하지난을 예지하고 명군 천하태형의 길조를 의



[그림 1] 용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35



[그림 2] 봉황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37

미하였다. 봉황의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 구별하였으며, 두 단어의 결합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암컷의 봉황은 젊은 시절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 연구가들은 봉황의 몸체를 사람들의 본성 다섯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머리는 미덕을, 양쪽 날개는 의무를, 등은 올바른 태도를, 가슴은 인간성을, 배는 신뢰감을 나타냈다(Eberhard, 1983). 오색 빛을 가진 봉황의 깃털도. 머리 깃은 德을, 갈비 깃은 禮를, 등 깃은 儀를, 가슴 깃은 仁을, 배의 깃은 信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석주선, 1979).

봉황은 용과 함께 왕실의 존엄과 덕을 상징하며(김선경, 2004), 나라 안의 최고 지위를 지닌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왕비, 공주, 공주의 흥배, 적의의 선장식, 대란치마와 스란치마에서 문양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한 봉황은 새끼를 일곱을 낳는다고 하여, 다산을 의미하였으며, 민화와 베게 마구리에 사용되었다(박혜원, 1995).

3) 학문

학은 천 년을 장수한다는 의미에서 십장생의 하나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품격이 고귀하고, 고고한 자태를 취하여 선비의 청백한 기상을 상징하였다(김영자, 1992). 봉황과 비교해 볼 때 온화한 느낌을 주는 여성적 성격이 돋보이는 평민적 문양이다.

학의 모습은 禮, 知, 德을 닦아 올린 문관을 상징하여, 문관의 흥배에 사용되었는데, 그 모습은 입에는 불로초를 물고 있고, 십장생문을 배경문으로 장식하여 짜임새 있는 구도감을 주었다.

중국에서 학은 父子의 관계도 상징하였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 마리의 학은 "높이 상승하고자" 하는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였다(Eberhard, 1983).

일본의 경우 문양은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많은데, 학은 일본 고유 양식으로 재창조하여 봉래사상(蓬萊思想)을 표출하고 있으며, 천 년을 산다고 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수를 상징한다(김세나, 오경화,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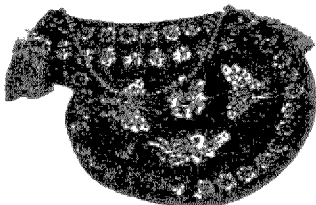
4) 호접문

나비는 변신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상징한다. 주로 자유연애와 행복의 상징물로 여겨졌는데, 이런 생각들은 자유로이 어울려 꽃밭을 날아다니는 모습이나 나비에 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장이나 소품에 나비문양을 많이 사용한 것은 집안에 간헐 지내는 처지를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됐으리라 여겨진다. 덩굴식물과 함께 그려질 경우에는 장수나 장생, 자손 창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정혜정, 2004). 또한 나비는 기쁨, 여름, 부부의 금슬이 좋음을 상징하여 이불깃이나 가구 장식 문양, 보자기, 혼례 의상이나 대례복의 문양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나비 자체의 화려한 형태로 인해서도 여성용품에 많이 선호되었다(문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 2005.10).

나비와 자두가 같이 있는 그림은 장수를 상징하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나비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70 혹은 80까지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희망을 의미한다(Eberhard, 1983).

5) 호문(虎紋)

호문은 무와 용감함의 상징으로 악이 침입할 때 추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설주에 호랑이 그림을 붙였다. 호랑이는 산군으로서, 산신령의 사자로서 권선징악하는 영특한 동물로 생각되며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는 義와 보은의 동물이다. 호랑이는 양(陽)이며, 남성적이나, 흰색의 호랑이는 서쪽과 가을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호랑이모양의 모자를 쓰게 하는데, 이는 호랑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Eberhard, 1983). 호문은 특히 우리 민족과 친밀하여 그 용맹성으로 무인의 상징으로 흥배에 사용된다(김영자, 1992).



[그림 3] 호접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184



[그림 4] 호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97

6) 공작문

공작문은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악을 쫓아내고, 공작의 깃털은 신분계급을 표시해 주었다(Eberhard, 1983).

7) 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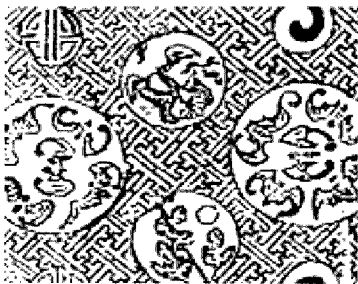
벌은 부지런함과 절약의 상징이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한다(Eberhard, 1983). 벌은 부지런한 습성과 협동심을 지니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과 부부애를 상징한다. 또한 여왕벌의 역할 때문에 다남을 상징하여 부녀의 장신구에 주로 사용됐다.

8) 기러기문

기러기는 사람들의 신의와 믿음을 상징한다.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세월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철새로서의 기러기는 헤어짐을 의미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배우자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러기 한 쌍이 날아다니는 문양은 좋은 결혼을 표현한 것이다(Eberhard, 1983).

9) 박쥐문

박쥐문은 행복과 장수, 자손번창을 상징한다. 박쥐를



[그림 5] 박쥐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184



[그림 6] 사슴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174



[그림 7] 거북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39



[그림 8] 꿩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79

의미하는 "복"자의 음과 행복을 의미하는 복(福)자와 같은 음이기 때문에 행복을 상징했으며, 박쥐는 천세이상을 누린다 하여, 장수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고, 강한 번식력 때문에 다남의 상징으로도 사용됐다(임영자, 1980). 종종 박쥐 5마리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오복의 상징으로 장수, 부귀, 장녕, 미덕을 가진 사람, 자연스러운 죽음을 나타내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어린이가 도자기에 박쥐를 넣는 것은 '고요함과 평화'를 상징한다. 1000살의 흰색 박쥐를 사람이 잡아, 말려 먹으면 매우 오래 산다는 설이 있다. 붉은색 박쥐는 큰 행복을 의미한다(Eberhard, 1983).

10) 사슴문

사슴은 십장생 중의 하나로 심산에서 약초를 먹고 사는 십장생의 영수로서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김영자, 1992). 사슴의 발음과 높은 수입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사슴은 한 때는 부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Eberhard, 1983). 또한 사슴문은 장수와 함께 선과 평화를 상징하여, 도교적인 은일 사상과 신선사상도 내포한다.

11) 거북문

거북문은 길상문으로 만 년을 산다고 하여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거북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여, 신선사상과도 결부된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거북을 신성시하였고, 장수와 함께 인내도 상징하는 동물로도 사용되었다(김영자, 1992). 거북이 등의 24 구갑무늬는 농경달력의 24절기와 연결되어있다.

거북문은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거북 윗부분의 둥근 돛 형태의 불룩한 갑각 모양은 하늘을 나타내어, 천정을 귀갑문으로 사용한다. 둥근 아래쪽은 땅을 상징한다(Eberhard, 1983).

12) 꿩문

꿩이 주로 사용되는 화충문에서 화는 초의 꽃을 상징하고 충은 꿩이다. 화충은 금계로 싸움을 잘하여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해서 절의를 관철한다는 의미로 문채의 화미함과 함께 취해졌다. 또한 부부의 예를 나눔은 그 절개를 지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아울러 학문의 도아와 교육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꿩이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동물로도 사용된다. 꿩이 12월의 초에 울지 않는다면, 큰 흉수가 생기고, 12월의 중간에도 울지 않으면, 여성들이 비도덕적으로 되어, 남성들을 유혹한다는 설이 있다(Eberhard, 1983).

13) 기린문

암컷이 “기”이고 수컷이 “린”인데, 모양은 비슷하나 암컷은 뿔이 없다. 기린은 용, 봉황, 거북과 함께 사영수(四靈獸)라하여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의미로 애호되었다(김영자, 1992). 그 중에서도 인(仁)의 동물로 되어 있고, 기린은 천세를 훨씬 넘는 서상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다.

14) 해치

하나의 뿔을 가진 소와 비슷하게 생긴 신수로 시비곡절을 잘 가리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즉 곡직을 분별한다는 뜻에서 대사헌의 흉배에 사용하였다. 해치는 불을 막아 준다고 하여 화재를 예방용으로 사용되었다.

15) 백택문

백택은 신수의 이름이며 유덕한 임금의 치세에 출현하는 것으로 해태와 같은 종류이다. 뒤통수에 뿔이 양쪽으로 돋았고 사자처럼 털이 덩수룩하게 많이 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나운 치아를 들어내고, 입을 벌리고 있고, 몸에는 비늘이 가득하다. 왕자나 재군의 흉배문양으로 대개 군(君)이 많이 사용하며, 왕자의 유덕을 상징한다(박옥련, 2000).

16) 원앙문

수컷을 “원”이라 암컷을 “앙”이라 일컬으며, 암수의 사

이가 좋으므로, 다정한 부부애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원앙은 수컷이 울면 암컷도 따라서 울며, 하늘을 날 때에도 수컷은 왼쪽에서 암컷은 오른쪽에서 날개를 나란히 날고, 짝을 잃으면 다른 짝을 다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의 화합에 비유된다(김양희, 2003). 원앙의 부리에 연꽃의 열매를 물고 있으면 득남을 암시한다(Eberhard, 1983).

17) 오리문

불교적 관습에서 오리는 “억제”를 나타내나 일반적으로 오리는 영원한 행운을 상징한다. 대만에서 선달 그림날에 검정색 오리를 제물로 바쳐, 그 피를 바른 종이로 만든 호랑이 그림을 도시의 문에서 태우면, 그 도시의 모든 악령을 추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Eberhard, 1983). 또한 오리의 알은 대개 불멸성, 잠재력, 생명의 신비, 생식의 근원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파종주머니 속에 알을 넣고 있다든가 밭에 알을 파묻는 관습이 있다. 이는 오리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최영옥,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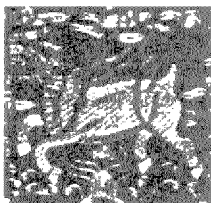
18) 어문(魚紋)

어문(魚紋)은 청동기 시대부터 길상의 우의를 부여했고, 물고기의 배속에 알이 많은 생태습성을 빌어 다자다복(多子多福)을 희망하는 기원을 표현했음을 보여준다(김양희 2003). 이는 물고기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임에서 유래된 것이다.

특히 잉어와 물결문양이 같이 있을 경우 ‘과거급제’를 의미하는 비유가 되어 조선 후기 자수에 애용되었다 (문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 2005.10).

19) 닭문

밝음을 예고하는 새로, 때를 맞추어 울기를 잘하므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신조로 생각되었으며 새벽에는 귀신을 쫓는 대길의 새라고 생각했다(문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 2005.10)



〈그림 9〉 기린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87



〈그림 10〉 원앙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42



〈그림 11〉어문
<http://kr.blog.yahoo.com/>



[그림 12] 닭문
<http://kr.blog.yahoo.com/>

2.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동물문의 상징성 (비잔틴 시대를 중심으로)

비잔틴시대 직물에 나타난 문양을 분류해보면 그리스, 로마에서 계승된 것,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페르시아 특징이 전래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장식적 요소와 기하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발전되었다. 그 중 종교적인 주제로 사용된 동물문양만 골라 그 상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자문

비잔틴 시대에서의 사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김지영, 1992). 로마시대의 사자문은 지배와 용기의 상징했으며, 페르시아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동물쟁투문에서 보이는 사자는 태양을, 사슴은 달을 의미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김영옥, 1987).

2) 양문양

양문양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로마시대에 양문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순결과 상냥함, 인내와 겸손을 상징했다(김지영, 1995).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모습은 여러 가지이다. 신약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워있는 어린 양의 모

습은 고난당하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단순히 양 한 마리로 상징할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희생', '유월절에 희생으로 바치는 어린 양'의 뜻이다. '예수의 부활' 혹은 '승리자 예수'는 양과 깃발로 상징한다. 비잔틴 시대에도 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또한 순결, 상냥함, 인내와 겸손을 상징함으로(김지영, 1992), 양문양은 로마시대의 상징성이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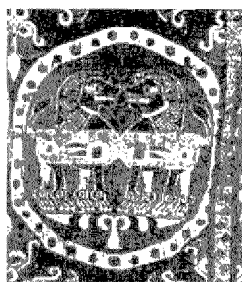
어문에서 물고기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여러 마리의 물고기는 독실한 신자를 의미하였다(김지영, 1992) 로마교황의 모자 가운데 크게 입을 벌린 魚頭의 문양은 본래 남자를 숭배함을 의미했으며, 또한 달과 신에 의존하는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물고기는 물과 비 뿐 만 아니라 강과 바다도 연상시키며, 달과도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으로, 동양의 오랜 토속적 관습과도 흡사하다고 하겠다(신영선, 1993). 물고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4) 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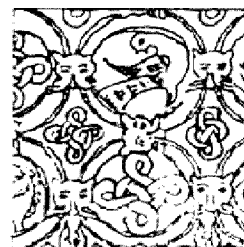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악과 간교함을 의미하며, 성서에서는 인간을 상징한다(김지영, 1995).

5) 비둘기문

비잔틴시대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기독교적 의미에서 비둘기 문양은 성령을 상징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 지혜, 이해력, 근면, 권능, 지식, 경호 등을 상징했다(김지영, 1992). 이는 로마시대의



[그림 13] 사자문
 Die textillen Kuenste, 47



[그림 14] 비둘기문
 비잔틴 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재인용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교회의 오순절을 상징하는 문양으로도 사용된다(이순홍, 이경손, 1999).

6) 독수리문

독수리의 상징은 예수의 승천을 의미하는 중세 기독교의 상징이며,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김지영, 1992). 또한 힘의 상징으로서의 독수리는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면 행운을 준다고 생각했고, 두 머리를 가진 독수리는 해돋이와 해넘이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김영옥, 1987). 또한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독수리는 왕을 상징하였다(Wilson, 2000).

7) 공작문

공작은 영원한 생명과 불멸의 상징으로, 로마인들로부터 전해 받은 상징이다. 그들은 공작의 살이 썩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불멸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김지영, 1995).

8) 호접문

나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나비의 번데기 상태는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며, 번데기가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과 무덤을 극복하고, 승리하심을 의미했다(이순홍, 이경손, 1999).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므로 이 상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부활을 의미하는데 쓰였다.

9) 벌문

꿀벌집은 꿀벌 각자나 꿀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일하는 수많은 꿀벌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꿀벌집의 상징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들의 질서와 조직을 의미했다(이경손, 1999).

10) 천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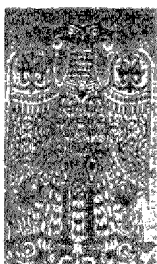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비잔틴시대에 하늘을 나르는 영조로서 애용되었다(김영옥, 1987).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pegasus)에서 유래되어 태양의 동반자로서 흰 천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나타나는 태양신 미트라를 상징했다.

11) 수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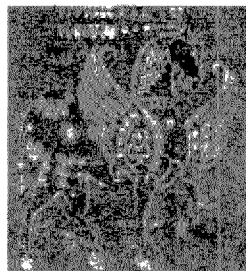
수탉은 태양의 신이며, 수탉이 운다는 것은 한 차례의 어두운 밤을 넘겼음을 뜻하였다. 밤의 귀신들로부터 약한 인간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며(CIBA Review, January, 1967), 곧게 선 꼬리와 박차와 벼슬 및 진주 장식의 줄을 물고 있다(김영옥, 1987). 또한 태양의 신이며, 좋은 징조를 상징하였다(Wilson, 2000).

12) 용작(龍雀: 센므브르:senmurv)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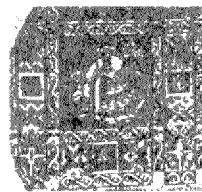
용작의 모습은 용의 머리와 날카로운 발톱, 날개, 바둑판문양의 공작꼬리, 2개 의 두상을 지녔으며, 고대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예술에서 유래하여 건강과 풍요함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지녔다(CIBA Review, 1967). 또한 천공(天空)의 성수(聖樹) 위에서 사는 새로서, 적에게 잡혔을 때나 치명상을 받았을 때, 그 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승리의 신 베레트레그나의 구현으로 간주되고 있다(조규화, 1982). 또한 젊은 영웅을 잘 보호하고 좋은 징조를 약속하는 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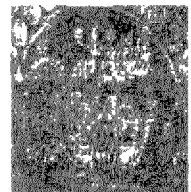
[그림 15] 독수리문
Die textillen Kuenste,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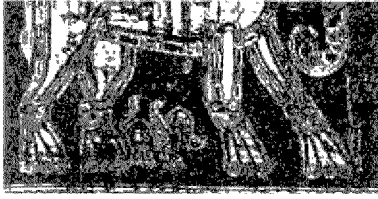
[그림 16] 천마문
Die textillen Kuenste, 43



[그림 17] 독수리문
Die textillen Kuenste, 48



[그림 18] 용작문
직물의 역사, 148



[그림 19] 용문

Die textillen Kuenste, 48

13) 용문

서양에서는 악마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용이 사도들에게 정벌되는 장면들이 성서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김재임, 박춘순, 1992).

서양에서의 용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였는데, 용은 큰 뱀의 일종으로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날개가 있으며 악귀의 상징으로 분란 악을 몰고 다니거나 인간을 못살게 구는 형)이 대부분이었고(김만희, 1987), 성서에 나오는 용도 악을 상징하는 괴물로 표현되어 이를 정복하는 사람을 영웅 시 했다(정명자, 1986).

14) 박쥐문

박쥐는 섬뜩하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상징됐다.

IV. 결론 및 요약

복식이나 직물 또는 장식품에 표현된 문양의 상징은 문화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문양을 빌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 한다거나 자연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유교적 불교문화권에 해당되는 한국의 문양과 기독교 문화권인 비잔틴 시대의 복식에 표현된 동물문의 상징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양은 용문, 호접문, 박쥐문, 벌문, 공작문, 어문, 닭문 등이다. 이들의 두 문화권에 대한 상징성을 비교해보면 용문과 박쥐문의 경우 상반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용문은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는 군왕과 왕실의 위엄, 웅장함을 상징하는 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악마를 상징한다. 박쥐문의 경우에도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는 행복과 장수,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불행을 상징한다. 호접문, 벌문, 공작문, 닭문양의 경우에는 두 문화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호접문은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

는 변신과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점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호접문은 동양권에서는 행복과 장수, 부부의 금슬이 좋음을 나타낸다. 벌문양은 두 문화 모두 부지런함과 벌들의 질서와 협동심 등을 표현하고, 닭문도 태양과 밝음, 앞으로의 좋은 징조를 나타내는 점에서 유사하다. 공작문의 경우는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불멸을 상징한다. 어문의 경우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는 다자다복, 즉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리스도와 신자들, 또한 생명의 재생 및 성령을 상징한다.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의 호랑이문이 무와 용감함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남성적 용맹성과 무인을 상징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자문이 지배와 용기를 상징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각각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동물문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는 다음과 같다.

봉황문은 상상의 동물과 왕실의 존엄과 덕, 다산을 의미하고, 학문은 장수와 선비의 청백한 기상을 상징한다. 기러기문은 신의와 믿음을 기린문은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며, 인(仁)의 동물이며, 사슴문은 장수와 부, 선과 평화, 거북문은 장수와 신선사상, 인내도 상징한다. 평문은 절의와 학문의 도야와 교육을. 백택문은 왕자의 유덕을. 해치문은 시비곡절을 가리는 상징적인 동물로 오리문은 영원한 행운과 불멸성, 다산성을 상징하고, 원앙문은 다정한 부부애를 암시한다.

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독수리문은 예수의 승천, 성령 및 힘을 상징한다. 비둘기문은 평화와 성령이 주시는 은총, 지혜 등을, 뱀문은 지해를 상징하면서 죄악과 간교함도 의미한다. 양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순결, 인내와 겸손 등을 상징하고, 용작문은 건강과 풍요함, 승리, 좋은 징조 등을 상징한다.

동물문 비교 시 두 문화권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면은 용문과 박쥐문의 경우 두 문화간에 상반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우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 보다 상상의 동물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소원을 바라는 상징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주로 예수의 부활이나 생명에 관한 의미를 동물문에서 많이 부여하였다. 식물문들이 부 문양의 의미로 직물에 많이 직조된 것과는 달리 두 문화 간 모두 동물문이 주문양으로서 복식에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었다.

주제어 : 동물무늬, 상징, 유교적불교문화권, 기독교문화권

〈표 1〉 동물문의 상징성 비교

	유교적 불교문화권(조선시대)	기독교 문화권(비잔틴시대)
용문	황제, 군왕을 상징, 제왕의 선정, 명철함, 현인, 절대 권력, 웅장함, 인간에서는 길조, 소박함, 해학, 오복사상	악마와 악귀의 상징
봉황문	왕실의 존엄과 덕, 다산을 의미	
학문	장수, 선비의 청백한 기상, 문관, 희망과, 지혜	
호전문	변신과 새로운 삶의 출발, 자유연애와 행복, 장수, 자손 창성, 여름, 부부의 금슬이 좋음	그리스도의 부활
호문	무와 용감함, 권선 징악하는 동물, 義와 보은의 동물, 남성적 용맹성과 무인	
박쥐문	행복과 장수, 자손번창, 다남, 오복	불행
벌	부지런함과 절약, 협동심, 가족의 화목과 부부애 및 다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들의 질서와 조직을 의미
공작	위엄과 아름다움, 악을 쫓아내고, 공작의 깃털은 신분 계급을 표시	영원한 생명과 불멸, 그리스도의 부활
독수리		예수의 승천을 의미, 성령, 힘, 왕을 상징
비둘기		평화, 성령,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 지혜, 이해력, 근면, 권능, 지식, 경호 등
뱀		지혜의 상징, 반면 죄악과 간교함을 의미, 인간을 상징
어(魚)문	다자다복(多子多福)을 희망, 잉어와 물결문양이 같이 있을 경우 '과거급제'를 의미	한 마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마리는 독실한 신자, 魚頭의 문양은 남자를 숭배함을 의미, 생명의 재생을 상징, 성령
양문		그리스도, 순결과 상냥함, 인내와 겸손
사자		그리스도의 부활, 지배와 용기, 태양
기러기	신의와 믿음, 세월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철새로서 기러기는 헤어짐, 배우자에게 소식의 전달자.	
기린	상서로운 징조, 인(仁)의 동물, 천세를 훨씬 넘는 서상적인 동물	
천마문		태양신
수탉	밝음을 예고, 귀신을 쫓음	태양의 신이며, 좋은 징조를 상징.
용작문		건강과 풍요함의 근원, 젊은 영웅을 보호하고 좋은 징조
사슴	장수, 부, 선과 평화, 도교적인 은일 사상과 신선사상	
거북	장수, 인내, 신선사상, 하늘과 땅	
꿩	절의를 관철, 부부의 절개, 학문의 도아와 교육	
백택	왕자의 유덕	
해치	사비곡절을 잘 가리는 동물	
오리	억제함, 영원한 행운, 불멸성, 잠재력, 생명의 신비, 다산성	
원앙	다정한 부부애	

참 고 문 헌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김만희 (1987) 한국의 미 (한국 민속 칼라 북스 6집). 상미사.
 김선경 (2004) 현대 한복소재 문양의 조형적 특성. 한복문화 학회, 7(2), 71-80.
 김세나, 오경화 (2003) 일본 전통문양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511-519.
 김양희 (2003) 중국 길상도안에 나타난 연화문 연구. 복식,

53(1), 67-75.

김영신 (2002) 중국 귀주성 묘족의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31-39.
 김영옥 (1987) 페르시아 직물 양식과 비잔틴 직물 양식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11(3), 1-14.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김원룡 (1978)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김정자 (2002) 전통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고찰. 한복문화, 5(4), 7-14.
 김지영 (1992) 비잔틴 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전

- 문대학교 논문집, 15, 561-589.
- 김지영(1995) ROME時代의 文樣에 關한 研究AD 300-700의 金·銀·細工品을 중심으로.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18, 163-194.
- 김재임, 박춘순 (1992) 용문의 발생과 전개. 충남생활과학연구지, 5(1), 9-18.
- 남미현 (2001) 한국과 일본의 현대복식에 나타난 용문의 비교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1), 57-73.
- 남자경 (2001) 복식에 표현된 문양에 관한 연구 -서양복식사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형설출판사.
- 박옥마, 정원희 (2003) 스카프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상징성과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문화학회지, 9(2), 67-80.
- 박춘순, 이자연 (2002) 샤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복식의 문양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5), 437-443.
- 박혜원 (1995) 봉황문양의 한국적 조형미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중국의 조형미 특성과 비교에 의한 -. 오산전문대학논문집, 5, 413- 440.
- 석주선 (1979) 흥배. 단국대 부설 출판사
- 신민 (2001)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길상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공예논총, 65-91.
- 신영선 (1993) 색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조형논총, 12, 351-373.
- 이경손 (1999) 기독교 상징에 관한 연구 (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 배화논총, 18, 203- 235.
- 이상례 (1991) 비잔틴 직물 문양 연구. 창원전문대학논문집, 9, 145-173.
- 이순홍, 이경손 (1999) 기독교 성직자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 143-152.
- 이윤정 (2003) 동,서양 복식에 나타난 식물문양의 종교적 상징성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37-48.
- 이호정 (1987) 복식디자인, -기성복 디자인에의 어프로치. 교학연구사.
- 임영자 (1980)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 - 이조시대 의상 중 운문을 중심으로-.복식, 3, 67-84.
- 임영자 (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261-274 .
- 임영주 (1991)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2), 283-295.
- 정명자 (1986) 우리나라 용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9, 263-290.
- 정혜정 (2004) 장신구에 나타난 주술적 상징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7(2), 93-101.
- 조규화 (1982) 복식미학. 수학사
- 조성희 (1998) 한국복식에 나타난 전통 문양일고, 교육논총 12(2), 165-172.
- 최영옥 (1994) "중세 서양 문장과 문장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Wilckens, L (1991) *Die textilen Kuenste*. Verlag C.H. Beck Muenchen
- Eberhard, W(1983) *Lexikon chinesischer Symbole, - Geheime Sinnbilder in Kunst und Literatur, Leben und Denken der Chinesen*. Eugen Diederiches Verlag,
- Flemming, E (1977) *Textile Kuenste,- Weberei/Stickerei/Spitze*. Verlag fuer Kunstwissenschaft
- Wilson, K (2000) 박남선, 차입선 율김 직물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 Fore, WF (1968) *Communication for churchmen*. Nashville & New York: Abingdon Press, 95
- 동물무늬,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 검색일 2006. 5.15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49836>
- 무늬의 기원,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 검색일 2006. 5.15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977>
- 한국의 무늬,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 검색일 2006. 5.15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977>
- 문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 (2005.10.14) 네이버 지식 in, 자료 검색일 2006. 5.15 자료출처 <http://kin.naver.com/open100>
- 전통 문양 (1990) 자료 검색일 2006. 5.15 자료출처 <http://koreapattern.80port.net/>

(2006. 02. 23 접수; 2006. 05. 17 채택)